



이달의 이슈



2017년 서울 경제 트렌드

- I. 2017년 서울 경제 트렌드
- II. 서울시민의 생활 트렌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장윤선 前연구위원 changys@si.re.kr

최윤진 연구원 erdene@si.re.kr

김보연 연구원 bykim@si.re.kr

2017년 서울 경제 트렌드

I. 2017년 서울 경제 트렌드

1. 국내·외 경제 전망

1) 세계 경제 전망

- 2017년 세계 경제 키워드는 ‘저성장’과 ‘보호주의’
 - 선진국 경제는 경기 부진 장기화로 제조업 일자리 부족과 누적된 소득 불평등 확대에 따른 불만이 표출되고, 난민 및 테러 문제 등으로 극우정당 지지율이 높아지는 등 자국중심주의가 심화
 - 신흥국 경제도 이에 맞대응하면서 국가 간 통합이 약화되고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등 반세계화 경향이 확대되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통상 마찰도 커질 전망
 - 이 같은 분위기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세계 교역을 더욱 위축시켜 한국의 수출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은 제조업 활성화, 인프라 투자 등을 목표로 한 대규모 확대 재정 정책 예상
 - 새 행정부 출범으로 감세 정책과 대규모 재정부양책 시행이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성장세 확대, 국채발행 증가 등은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의 경기 호조는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이거나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수출 확대에 이어지기 어려운 한편, 미국의 금리 상승은 국가 간 금리 동조화 현상에 따라 국내 시장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하고 서민 가구에 타격 우려
 - 트럼프는 미국 내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가 무역

자유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인식해 해외 생산 제품에 높은 관세 부과를 언급하고 있으며, 기존 무역협정에도 재협상 의지를 밝힌 만큼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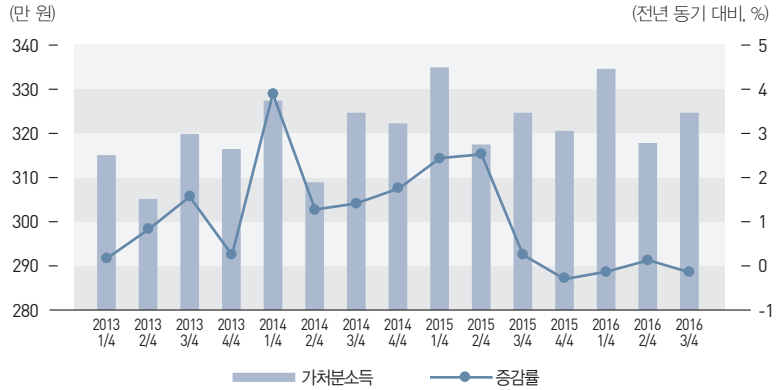
- 유럽은 영국의 브렉시트 진행과정과 EU 주요 회원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브렉시트의 파급효과가 좌우될 전망
 - 영국의 메이 총리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의사를 내년 3월말 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고, 내년 상반기 중 영국의 EU 가입을 규정한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는 법안 상정 추진
 - 프랑스 대통령 선거(2017년 4월), 독일 총선(2017년 4월),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2016년 12월) 및 총선(2018년 3월)에서 반 EU 세력이 승리할 경우 추가 EU 탈퇴국 발생 우려
 - 브렉시트 파급효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유럽지역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여력이 있는 독일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고 있으며 주요국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 경기부양 가능성도 상존
- 중국은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안에서 경제 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부채 리스크 및 과잉생산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성장률이 올해보다 소폭 하락 전망
 - 과잉생산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기존의 투자,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소비, 내수,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로 목표를 전환함에 따라 산업 구조조정의 성공여부가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인프라 투자 등 확대재정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지방정부 및 기업부채 리스크 증대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통화정책이 전망됨
 -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 서비스업 위주의 성장을 표방해 기존 교역 패턴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중국 내수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해 수출 패러다임을 개선할 필요

- 일본은 미국의 금리 상승과 유가 회복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 몇 년간의 부양책에도 경기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했으며, 엔화 약세 유도에도 글로벌 금융 불안 국면마다 엔고 현상이 반복됨. 일본 정부는 재정건전성 부담으로 공격적인 재정지출 확대에 나서기는 어려워 경기 하강을 막는 정도의 재정정책 예상
 - 한편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 합의로 저물가 문제도 해결될 것 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엔고와 디플레이션으로 고전했던 일본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 미국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으면 일본의 수출에도 개선이 기대되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폐기 시 일본의 수출 확대 정책과 구조조정에 일부 차질이 있을 예상

2) 국내 경제 전망

- 2017년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2% 수준에 머물 전망
 -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국내 수출 경기의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은 결과적으로 국내 금리 인상을 유발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
 - 2016년 경기 부양책의 한 축이었던 민간소비는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① 종료로 소비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이며, 또 다른 한 축인 건설투자도 주택 공급과잉 우려에 따른 신규 분양 감소로 성장세 축소 전망
 -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세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 경제의 생산과 소비 활력이 떨어지고, 노동력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로 성장세 하락이 계속되면서 저성장 우려 확대 예상
- 국내 정세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실질소득 정체로 가계부문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둔화 전망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2015년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인 98.8보다 낮게 나타남
 - 가치분소득 증가가 부진한 데다 연내 가계부채의 원금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여력을 제약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심리 개선 지연
 - 2016년 3분기까지 시행된 개별소비세 인하로 내구재 소비가 증가해 2017년에 비슷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소비 진작 효과는 올해보다 작을 것으로 분석

^① 정부는 2015년 3/4분기부터 2016년 3/4분기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가전 보조금 정책, 대규모 할인행사 개최 등의 소비활성화 정책을 추진



주 전국 2인 이상 실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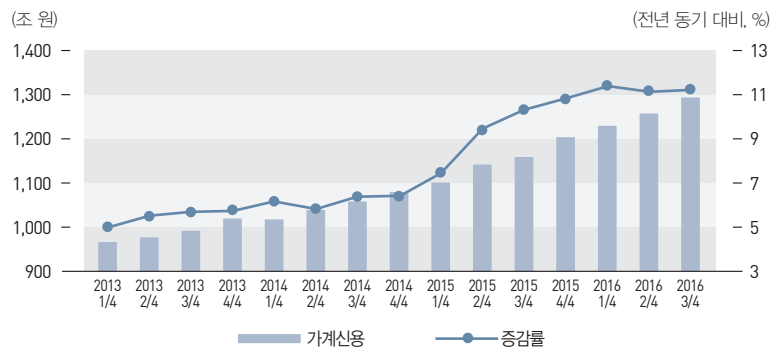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그림 1〉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 추이

- 미국 금리 상승은 국내의 시중 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가계에는 채무부담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투자 손실 발생과 투자 위축 초래 우려
 - 2015년 하반기 이후 가계신용의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금리 상승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할 우려
 - 전국의 가계부채 한계가구 규모는 약 134만 가구^②로 집계되며,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비중은 상용근로자보다 1.5배가량 높아 향후 금리 상승이 가계부채 한계가구와 자영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해 더욱 근본적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 조치 필요

^② 2016년 6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전국의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1,072만 가구)의 12.5%에 해당하는 134만 가구로 집계

- 가계부채 한계가구 :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금융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이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는 가구를 의미



주 가계신용 잔액 말잔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2〉 국내 가계신용 추이

- 기업부문의 설비투자는 소폭 늘어날 전망이며, 건설투자는 성장세 축소 예상
 - 설비투자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만큼 기저효과로 내년에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세계 경기 회복 부진 시 2015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
 -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0%대 초반에 그쳐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이 예상됨에 따라 설비투자 확대가 어려울 전망
 - 건설투자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 확대로 공급조정이 예상되며, 중앙정부의 토목 관련 SOC 예산 규모도 축소됨에 따라 내년에는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낮아질 전망

-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소비자 물가는 저물가 기조 유지 예상
 - 미국발 금리 상승과 유럽 및 신흥국 경제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달러 강세가 예상되나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달러 약세 유인도 상존
 - 공급 측 요인인 국제 유가의 회복세로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되나 저성장으로 총수요 압력이 크지 않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안정된 수준에 머물 전망
 - 2017년에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간 인상이 미뤄졌던 기타 공공요금의 인상과 전세가격 상승은 기타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세계경기의 하향 및 제조업 교역 위축 현상 지속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축소 전망
 - 경상수지는 흑자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 해외여행객 증가 및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줄어들 전망
 -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등 신흥국에서도 무역제재가 확산되는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국내 제조업 분야 수출 품목의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한·미 FTA 등 미국발 통상마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2. 서울 경제 전망

- 서울의 경제는 내수 부진으로 2% 초반의 성장률이 예상되나,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 시 더 심한 정도의 경기 침체가 우려됨
 - 서울은 경상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미국발 금리 상승 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내수 불황과 소득 침체 요인도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에 일조
 - 서울은 제조업 비중이 낮아 세계 경제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더라도 실물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않겠지만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를 통한 경기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서울의 건설투자도 둔화가 예상됨
- 서울은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상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10월 기준 서울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0.8%, 12.1% 늘어나 최근 서울의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
 -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가계부채의 질도 악화 추세

〈표 1〉 서울의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추이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2015년 3분기	2015년 4분기	2016년 1분기	2016년 2분기	2016년 3분기
주택담보 대출 비중(%)	63.8	63.2	63.7	64.0	63.9	64.1	64.5
예금은행 대출 비중(%)	86.0	85.8	85.7	85.4	84.8	84.6	84.4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 비중(%)	14.0	14.2	14.3	14.6	15.2	15.5	15.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는 전년(9,425만 원) 대비 2.6% 증가한 9,671만 원으로 전국(6,655만 원) 평균보다 45% 많음
- 매년 지속적으로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웃돌고 있으며, 경상소득(5,357만 원) 대비 부채 비중이 180.5%로 전국(136.3%) 대비 크게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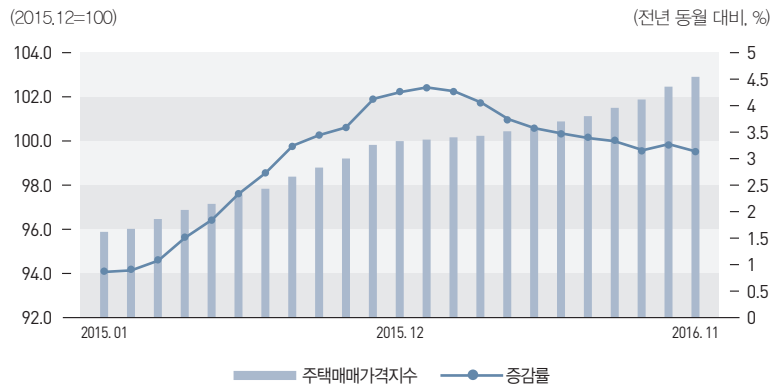
〈표 2〉 서울의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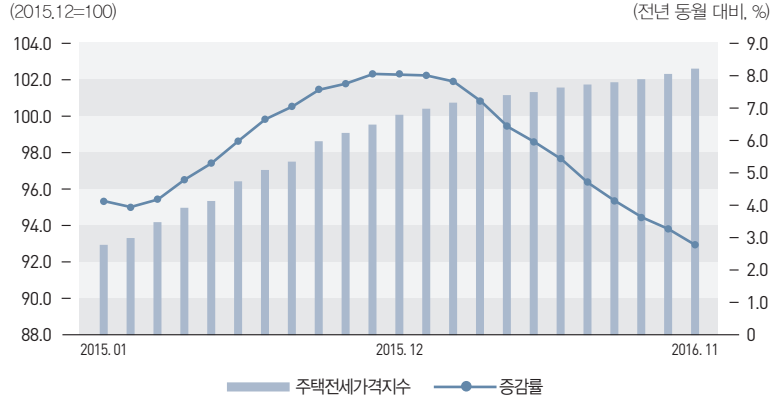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가계부채 (만 원)	8,263	8,596	8,924	9,425	9,671
전년 대비 증가율(%)	-	4.0	3.8	5.6	2.6
경상소득 (만 원)	4,855	4,923	5,034	5,253	5,357
전년 대비 증가율(%)	-	1.4	2.2	4.4	2.0
경상소득 대비 부채(%)	170.2	174.6	177.3	179.4	180.5

주 2016년은 추정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2년부터 발표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서울의 주택시장은 전국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이지만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침체 가능성
 - 2016년 11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주택전세가격지수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1%(전국 1.5%), 2.8%(전국 1.8%) 상승
 - 매매가격 상승폭은 3%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전세가격 상승폭은 급격히 축소 중
 - 내년 금리 인상 폭이 크고, 2017년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여파가 나타난다면 부동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서울도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





자료 KB국민은행

〈그림 3〉 서울의 주택 매매/전세가격지수 추이

3. 서울의 산업·고용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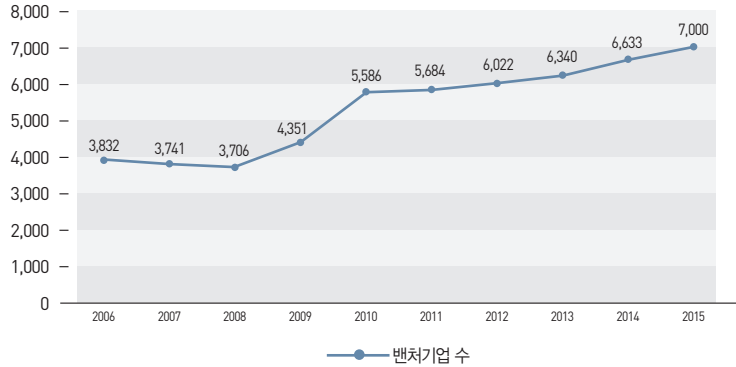
- 서울은 IT 및 콘텐츠 관련 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 서울에서 사업체 수가 많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이지만 모두 사업체 수 증가가 정체된 상태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같이 IT 및 콘텐츠 관련 산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같이 인구밀집 도심지역에 필요한 산업은 빠른 속도로 증가
 - 반면 제조업은 감소하여 서울의 산업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표 3〉 서울 산업별 사업체 수, 비중, 연평균 증감률

[단위: 개, %]

주요 산업	2006년		2014년		연평균 증감률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제조업	63,829	8.7	61,218	7.5	-0.5
도매 및 소매업	217,653	29.7	233,196	28.7	0.9
운수업	93,740	12.8	95,128	11.7	0.2
숙박 및 음식점업	116,017	15.8	126,557	15.6	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490	1.7	22,663	2.8	7.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621	3.1	37,599	4.6	6.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807	1.2	13,764	1.7	5.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553	2.5	26,224	3.2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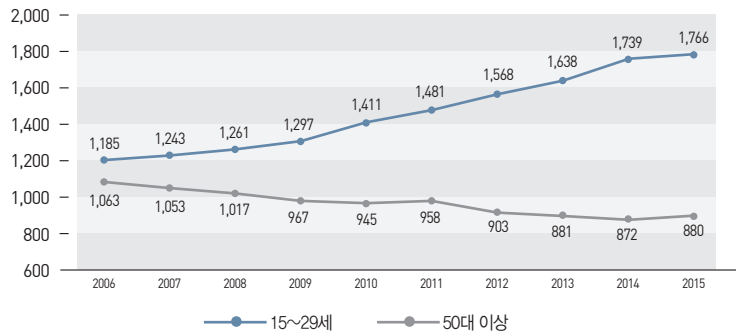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벤처인

〈그림 4〉 서울의 벤처기업 수

- 서울의 벤처기업에서도 IT 및 콘텐츠 관련 사업체 성장 추세 지속 예상
 - 서울의 벤처기업은 2015년 7,000개로 2006년보다 1.8배 증가했으며, 벤처자본 투자금액도 2조 3,831억 원으로 2006년보다 2.2배 증가
 - 현재 서울의 벤처기업 사업체는 정보처리 및 S/W 분야에 가장 많고 전국 대비 비중도 61.4%로 높았으며, 2017년에도 이 분야 중심의 성장세 지속 예상



자료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그림 5〉 서울의 청년층 및 50대 이상 취업자 수

- 청년층과 중·고령층 간 고용시장 양극화 지속 예상
 - 서울 50대 이상 취업자는 2015년 176.6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서울 취업자의 34.4% 차지
 - 이는 당초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노후준비를 위해 일터에 머무는 중·고령층이 늘어난 것에 원인
 - 청년층 취업자(15~29세)는 2015년 88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에도 고용시장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표 4〉 서울 증사상 지위별 청년층 및 50대 이상 취업자 수

증사상 지위별	15~29세		50대 이상		전체		
	취업자 수	서울에서 비중	취업자 수	서울에서 비중	취업자 수	비중	
임금 근로자		809,760	20.1	1,177,622	29.2	4,026,788	78.4
	상용근로자	500,696	19.2	565,372	21.7	2,605,578	50.7
	임시근로자	262,843	23.9	436,331	39.7	1,098,206	21.4
	일용근로자	46,221	14.3	175,919	54.5	323,004	6.3
비임금 근로자		56,551	5.1	582,412	52.5	1,110,133	21.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9,970	2.9	163,072	48.0	339,650	6.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6,008	5.9	329,186	54.2	606,863	11.8
	무급가족종사자	10,573	6.5	90,154	55.1	163,620	3.2
전체		866,311	16.9	1,760,034	34.3	5,136,921	100.0

주 시·도별 가중치 부여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2015 하반기), 고용노동부

- 50대 이상 취업자는 대부분 일용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 서울 일용근로자의 54.5%가 50대 이상이며, 임시근로자의 비중도 39.7%로 높은 반면, 청년층 일용근로자 및 임시근로자 규모는 50대에 비해 작은 편
 - 서울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인 것에 비해 청년층 자영업자 수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서울 산업별 청년층 및 50대 이상 취업자 수

주요 산업	15~29세		50세 이상		서울 전체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서울에서 비중	취업자 수	서울에서 비중	
제조업	67,667	13.4	176,227	34.9	504,812
건설업	18,496	5.9	151,284	48.0	315,313
도매 및 소매업	175,241	18.3	309,964	32.4	955,249
운수업	16,376	6.4	144,276	56.6	254,997
숙박 및 음식점업	111,769	25.2	163,900	36.9	443,616
부동산업 및 임대업	8,058	5.4	84,438	56.6	149,15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7,086	22.8	61,976	16.2	382,39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1,411	11.9	139,440	52.7	264,500
교육 서비스업	83,199	19.6	96,099	22.6	424,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3,776	22.9	100,445	31.1	322,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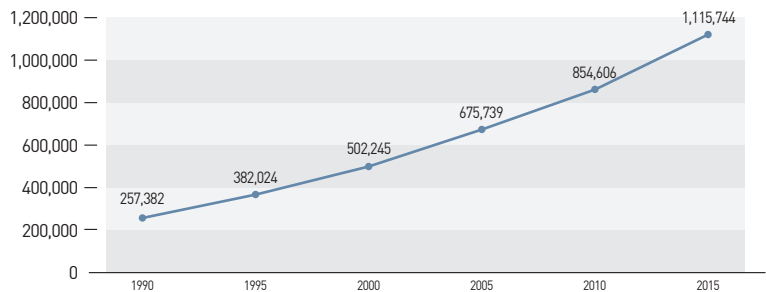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2015 하반기), 고용노동부

- 50대 이상 취업자와 청년층 취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산업 분야는 서로 다른 것으로 분석됨
 - 서울에서 사업체 수가 많은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위 산업을 제외하고 서울의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건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특히,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주로 생계형 일자리인 것으로 추정
 - 청년층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로 나타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산업에 많이 종사

II. 서울시민의 생활 트렌드

1. 1인 가구 중심 생활 문화의 확산

- 세계적인 트렌드와 함께 서울도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싱글라이제이션(Singlization)’이라고 부르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
 - 서울도 1인 가구가 1990년에는 25만 명(전체 가구의 9.1%)으로 규모가 매우 작았으나, 2015년 현재는 약 112만 명으로 서울 가구의 28.5%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
 -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 교육으로 인한 기러기 가족 증가, 이혼·별거와 같은 가족 해체,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 증가 등으로 다양



자료 인구총조사(각 연도), 통계청

〈그림 6〉 서울 1인 가구 증가 추세

〈표 6〉 2015년 서울 1인 가구 비중

서울 전체 가구 수	서울 1인 가구 수	1인 가구 비중
3,914,820	1,115,744	28.5

자료 인구총조사(2015), 통계청

- 서울에는 20~30대의 젊은 1인 가구가 유달리 많은 것이 특징
 - 서울은 다른 시·도에 비해 20~30대의 1인 가구 규모가 큰 편
 - 서울에서 초혼 연령은 남자 32.2세, 여자 29.8세로 나타나 결혼이 늦어지고, 혼자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이런 트렌드에 맞춰 젊은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 및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추세

〈표 7〉 2015년 서울 연령별 1인 가구

	서울	전국	전국 대비 서울 비중
합계	1,115,744	5,203,440	21.4
20대 미만	13,721	58,020	23.6
20대	258,478	887,023	29.1
30대	263,207	953,322	27.6
40대	176,888	849,758	20.8
50대	155,069	877,549	17.7
60대	118,624	668,183	17.8
70대	90,041	596,918	15.1
80대 이상	39,716	312,667	12.7

자료 인구총조사(2015), 통계청

- 젊은 1인 가구 문화는 혼밥으로 시작하여 혼술, 혼창, 혼행, 혼공으로 진화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5'에 따르면 56.8%가 혼자 여가를 즐기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혼자 즐기는 문화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놀이 풍토가 생김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외식소비행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6%가 혼자 외식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간단하게 도시락을 먹는 '혼밥'족이 늘어나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2013년 200억 원에서 2016년 5,000억 원으로 급증(CU, GS25, 세븐일레븐 편의점 자체조사)

-영화관에 1인 전용 영화 좌석이 생기는 한편, 1인 맞춤형 여행 상담을 해주는 전용 여행사도 등장했으며, 혼자 전시회·박물관을 본 여성은 42.4%, 혼자 콘서트를 본 여성은 23.2%로 나타남(마이크로밀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조사)

- 테크놀로지가 익숙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인터넷 관련 문화 확산
 -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SNS 활동도 활발해졌으며, ‘인스타그램’과 같이 일상의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인기
 - ‘인스타그램’은 전 세계 월간 활성사용자 수가 평균 3억 명이며, ‘셀피(자가촬영)’, ‘먹스타그램(먹다+인스타그램)과 같은 신조어들이 등장할 정도로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음
 - 온라인 속 소통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소모임’, ‘소셜 다이닝’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생겨남
 - ‘소모임’은 바쁜 현대인들이 특징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 동호회를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소셜 애플리케이션
 - ‘소셜 다이닝’은 혼자 밥 먹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날짜를 정해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함께 먹는 새로운 식사 문화
- 여유를 추구하는 키포크 스타일 문화 등장
 - ‘키포크(Kinfolk)’는 2011년 미국 포틀랜드에 사는 예술가들이 만든 잡지로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과 소박하게 나누는 키포크 라이프 스타일을 만듦
 - 여유가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며 일상적인 일에 가치를 두고 취미와 여가, 느긋하고 건강한 식사 등을 즐기는 슬로우 라이프 지향
 - 식품 관련 자연주의 유기농 식단, 도시농부, 텃밭, 홈베이킹이 유행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단순화된 결혼식을 지향하는 셀프웨딩, 스몰웨딩 문화가 생겨났으며, 디자인 개성을 담은 감성캠핑을 떠나는 등 다양한 문화에 영향을 끼침

2. 1인 가구의 다양한 소비형태

- 식문화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
 - 국내 1인 가구는 주거, 식료품, 외식 및 숙박 소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가구원수별 가계수지)
 - 주거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매일 소비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1인 가구 의식주 중 식생활 분야 소비가 가장 큰 것으로 예상
 - 식품업체들은 1인 가구를 위해 다양한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상품을 개발했으며, 대형마트 및 편의점의 자

체브랜드(PB, Private Brand) 상품, 외식업체의 테이크아웃(Take-out) 상품, 차에서 탄 채로 음식 구입이 가능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등 편의성을 강조한 다양한 간편 식문화가 대세

• 편리한 생활 밀착형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바쁜 젊은 1인 가구들은 식사, 쇼핑, 이사, 부동산, 숙박, 금융, 세차, 세탁 등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인터넷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형태로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

-O2O 서비스 인지율과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음식(배달), 숙박, 택시 순(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진흥원, 2015년 인터넷 경제 활동 실태조사)

· 음식 배달 서비스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거리상 가까운 배달 가능 음식점을 연계해주는 서비스부터 배달이 가능하지 않은 맛집의 음식을 직접 구입하여 배달해주는 서비스인 푸드플라이, 배민 라이더스 등 다양한 형태의 앱으로 등장

· 콜택시 앱 서비스인 카카오택시는 이용자의 현위치와 목적지 정보를 기사에게 전송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호출 수 500만 건 이상

-이 밖에도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와 같이 빠르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소셜커머스 앱, 직방, 다방과 같이 편리하게 원룸, 오피스텔 등의 월세, 전세를 검색할 수 있는 앱, 세차왕, 차케어, 인스타워시와 같이 차가 있는 장소로 와서 세차를 해주는 앱, 대리주부, 아내의 휴일, 미소와 같이 청소나 요리 등 밀린 가사일을 해주는 앱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화 중

• 가치 있고 합리적인 소비

-주변 사람들과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키포크 라이프가 등장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의 순간에 충실한 옐로(YOLO, You Only Live Once) 라이프, 무조건 낮은 가격이 아닌 높은 가치로 가성비를 판단하는 B+프리미엄 등 다양한 문화가 생겨났고, 가치를 느끼는 부분에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문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음

-해외직구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같은 상품을 해외시장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자라, 유니클로, GAP, H&M과 같은 패스트 패션 SPA브랜드(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Brand)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최신 유행을 반영한 상품을 빠르게 공급받는 등 합리성 추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이케아는 다양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내

세우며 예전처럼 오랜 기간 사용하기 위해 가구를 구입하기보단, 쉽게 생활 변화에 맞춰 생활소품을 변경할 수 있는 젊은 트렌드 반영

- 가치 있고 합리적이면서도 편리한 소비
 - 가치 있고 가격은 합리적이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등장
 - 만나박스는 유기농채소와 식재료를 배달해주는 앱으로 정기배송 신청을 하면 주기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배달받을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 친환경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문화를 겨냥했으며, 식재료뿐 아니라 조리법을 함께 배송해주어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도 건강한 재료로 쉽게 요리할 수 있게 함
 - 꾸까와 원모먼트는 전문 플로리스트가 만든 꽃다발을 정기적으로 집에 배달해주는 플라워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 주로 바쁘게 살아가는 젊은 고객들이 꽃을 통해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주문
 -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정기 배송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전문가가 만든 꽃다발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가치 부여

3. 공유경제 활성화

- 협력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가 전 세계적 트렌드로 부상
 - 공유경제는 유·무형의 자원을 소유 대신 대여하고 차용하여 쓰는 신경제활동 방식
 - 공유경제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요인이 융합되어 대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자본주의의 위기, 저성장의 지속,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스마트폰 보급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 소셜 SNS 발달로 개인 간 연계 촉진 등이 공유경제의 주요 등장 배경
 - 공유경제에 대한 글로벌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응답자 중 68%가 자신의 물건을 공유할 의향이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공유 의향이 81%로 나타나 공유경제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Neilson, 2014)
 - 공유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개인적, 사회적 연계를 통한 공동체적 가치 회복으로 소유경제와 대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

- 공유경제 산업은 2010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전 세계 70여 개 도시에서 약 3,000개 이상의 공유서비스 제공
 - 공유경제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 이후 약 100% 이상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Masssolution, 2015)
 - 2010년 8.5억 달러에서 2015년 344억 달러로 40배 이상 급성장
 - 북미와 아시아가 각각 50%, 30.6%로 전체시장의 81%를 차지하며, 아시아 시장규모가 폭발적 성장
 -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는 단기간에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공유경제 기업으로 도약
 - 2016년 9월 기준 우버의 기업 가치는 660억 달러(1위), 에어비앤비는 300억 달러(3위)(WSJ, 2016)
 - 2015년 글로벌 스타트업 10대 기업 중 공유경제 관련 기업이 50% 이상
 - 공유경제의 주요 분야는 숙박, 교통, 금융, 공간, 재능 등으로 자원과 이용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
 - 2016 다보스 포럼은 공유경제가 본격 상용화 및 확산되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를 2025년으로 전망했으며, PwC는 2025년 공유경제 시장 규모를 3,350억 달러로 예상

- 국가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공유경제 플랫폼이 급속히 확대되며 해외 주요도시에서 공유경제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
 - 유럽 · 미국 주요 도시도 급증하는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과 관련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
 - 유럽연합: EU 2020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2010), EC 공유경제 정책 가이드라인(2016) 발표
 - 영국 리즈, 맨체스터: 리즈(교통), 맨체스터(건강 및 사회복지) 공유도시사업 시행(2015)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유럽 최초로 '암스테르담 공유도시' 지정(2015)
 -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유경제와 관련한 정책 이슈를 다루는 워킹그룹 설치(2012)
 - 한편 공유경제 확산으로 주요 도시에서 기존 법제도와 충돌, 불법성 문제,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등이 발생하면서 공유경제 규제정책도 증가
 - 뉴욕주는 2016년 10월 주택의 단기임대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숙박공유업을 금지
 - 한국은 2016년 2월 공유경제를 신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유민박

업 신설, 카셰어링업체 면허정보 제공범위 확대,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시행 등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 국내에서도 대도시의 20~30대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문화가 빠르게 확산 중
 - 온라인 거래, 온디맨드형 서비스, 비용절감, 협력소비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감성적 연결 등 공유경제의 특성이 젊은 소비세대와 친숙
 - 정장·한복을 대여하는 의류공유 기업 '열린 옷장'은 저렴한 비용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월 2,500여 명이 이용
 - 한국은 우수한 ICT·모바일 인프라를 기반으로 숙박공유, 차량공유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공유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
- 서울시는 2012년 9월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법제도 환경 조성에 주력
 - 서울시는 국내 공유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국내 최초로 마련하는 등 공유경제 제도 기반 마련과 공유기업 종합지원, 생활속 공유문화 확산, 공유도시 서울브랜드 확산 정책 추진
 - 2012년 공유촉진 조례 제정, 2013년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및 온라인 플랫폼 '공유허브' 구축
 - 공유허브는 연간 방문자수가 150만 명을 넘었고, 2013년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한 나눔카는 2016년 1,250만 명의 회원 수를 돌파하며 하루 평균 6천 명 이용
 - 2016년 서울시 공유기업 및 단체는 총 70개로 총 75개의 사업을 수행 중
 - 서울시민의 '공유서울' 참여는 2014년 약 33만 명에서 2016년 약 156만 명으로 5배 정도 증가
- 서울시는 공유경제를 육성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유경제 기업의 불법 운영 등 관련 현안을 조정하는 제도적 역할을 모색할 필요
 - 숙박공유기업 에어비앤비와 차량공유기업 우버는 2013년에 한국 진출
 -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시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여 2015년 3월 서비스 중단
 - 에어비앤비는 2016년 11월 기준 리스팅 수 10,964개와 호스트 4,602명이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무등록 불법 숙박시설의 영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2016년 2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은 공유민
박업을 신설하여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을 추진 중이나 현재 근거
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

참고문헌

1. 관계부처 합동, 2016.2.17., “투자활성화대책”,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2. 김난도, 2016, “트렌드 코리아 2017”, 미래의창
3. 김목한, 2013.7,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세계와 도시 1&2호, 서울연구원
4. 김유진, 2015.12.15., “공유경제 트렌드 확산에 따른 산업 생태계 변화”,
글로벌 경영트렌드 제10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5. 김은란 외 3명, 2015,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6. 반정화, 2015, “서울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관광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7. 변미리, “서울의 4種4色 1인 가구, 대세로 자리 잡다”, 서울경제 2016년 3월호, 서울연구원
8. 산업연구원, 2015,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화서비스 지출행태 및 트렌드 변화”
9. 산업연구원, 2015, “1인 가구의 문화소비지출행태 분석”, 산업연구원
10. 서울특별시, 2016.11, “2016 공유서울페스티벌 콘퍼런스 자료집”
11. 정성춘, 2016.11.18., “2017년 세계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6 No.33
12. 한국금융연구원, 2016.10.26., “2016년 경제·금융 동향과 2017년 전망”
13. 한국소비자원, 2015, “1인 가구 소비행태와 소비자문제 연구”
14.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2015 한국인터넷백서”
15. 한국은행, 2016.10, “경제전망보고서”
16. LG경제연구원, 2016.10.05., “2017년 경제전망”, LG Business Insight
17. PwC, 2014, “The sharing economy – sizing the revenue opportunity”

신문기사

1. 연합뉴스, 2016.11.24., “日경제 약재-호재 교차 중대 기로...아베 얼굴 웃음기 가셨다”
2. Wall Street Journal, 2016.9.14., “The World’s 13 Most Valuable Startups”

웹페이지

1.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395200&memberNo=3379134&vType=VERTICAL>
2.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205>
3. <http://lifentalk.tistory.com/1272>
4. <http://blog.daum.net/daumad/927>
5. <http://blog.kiwi.co.kr/220801246691>
6. 내 손안의 서울,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034014>
7. 세계지식포럼, <http://www.wkforum.org>
8. www.insideairbnb.com
9. Masssolution, 2015.3, <http://crowdexpert.com/crowdfunding-industry-statistics/>